

국내 IT자산관리 시장 동향 및 전망

2007. 1. 8

올해 들어 IT자산관리 시장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국산업체가 강점이었던 이 시장에 대형 외산업체들이 진입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여기에 국내 SI업체들도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IT자산관리가 IT거버넌스(Governance)의 핵심 영역으로 여겨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IT자산관리 솔루션이 IT서비스관리(ITSM) 후속 시장으로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IT거버넌스 개념 자체가 다양한 영역에 쓰이고 있어 IT자산관리 시장 역시 매우 폭넓게 형성될 전망이다. 관련업체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솔루션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대략 3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T자산관리의 정의와 개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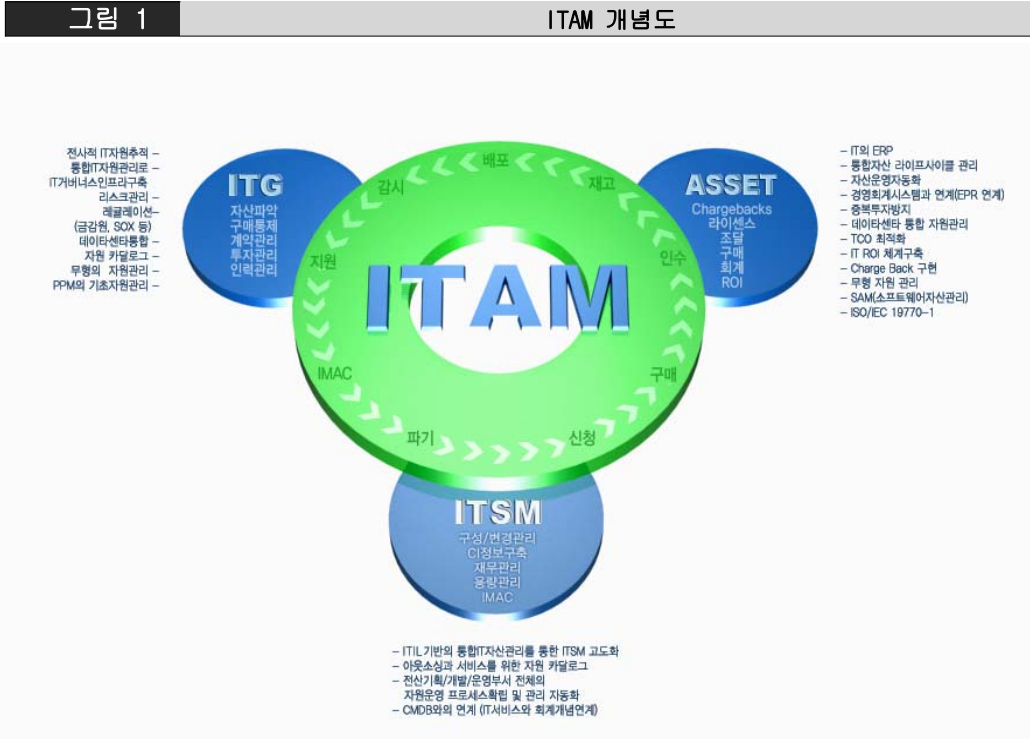
IT자산관리란 IT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자산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IT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중복 투자가 있는지, 투자대비효율성이 높은지를 관리하고 자산의 시기별 상황 및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

IT자산관리는 과거에도 있던 개념이지만 최근 들어서 IT거버넌스와의 결합되면서 시장의 전개 양상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고정자산관리는 '일회성의 회계상 재고관리'의 성격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IT자산의 라이프사이클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글로벌 IT 업체들이 IT자산관리 시장에 적극 진출하면서 솔루션 수용 폭이 크게 확장되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변경관리나 물리적 하드웨어 장비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등 한정된 분야에 쓰였던 솔루션이 총체적인 IT자산관리 솔루션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업체의 경우 자사의 넓은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IT시스템 전 라이프

사이클 관리와 함께 ITSM, PPM(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솔루션과도 연계해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IT자산관리 도입 목적 역시 IT 비용절감, 리스크관리, ITIL기반의 자산관리(ITSM), 지배구조개선(ITG)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출처 : 한국CA

이런 새로운 자산관리(ITAM)기술은 IT자산관리 범위의 확대,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관리, 상시적인 전체 자산라이프사이클의 관리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산관리의 관리범위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IT장치, OA장비, IT인력, IT 프로세스, 비즈니스 노하우, IT관련 프로젝트 서류 등 유형 및 무형 가치의 폭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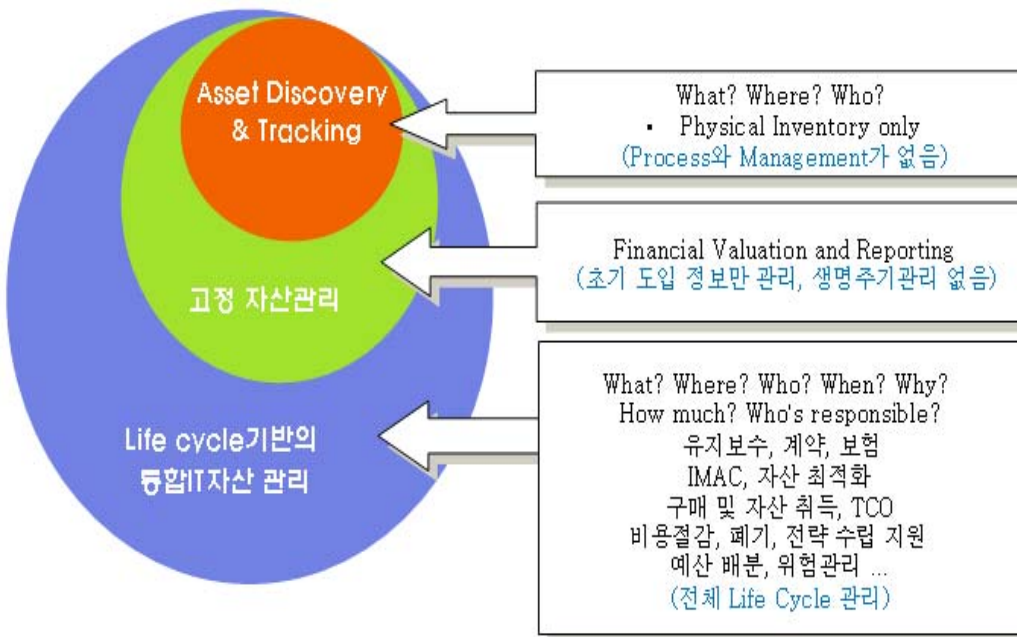
지난해 대한생명은 국내 최초로 한국CA의 유니센터 에셋 매니지먼트를 도입해 IT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현했다. 대한생명은 오래전부터 비재무, 재무적 관점을 결합한 전 라이프사이클 관리 솔루션 도입을 고려해왔다. 한국CA는 대한생명 사례가 국내에서 광의의 ITAM 솔루션 도입의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자산관리 국제 표준 등장으로 가속화

이러한 차세대 IT자산관리 솔루션은 꾸준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산을 위한

동기가 될 만한 요소로는 우선 국제표준의 등장이다. 2006년 5월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국제 표준인 SAM ISO/IEC 19770-1 표준을 발표했다.

그림 2 자산관리의 진화



출처 : 한국HP

또 방대해져 가는 IT자산 규모에 따른 관리 수요 발생으로 자체적인 확장과 합병 등으로 인한 IT자산의 세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리스트 관리를 위한 자산의 시스템적인 관리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기관 규제, 보안규정 등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터 센터가 통합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설립과 통합으로 인한 자산의 정리 및 관리 체계도입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또 IT아웃소싱과 SLM(서비스 수준 관리) 등 서비스 고객을 위한 자산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유형적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적 자산의 관리 체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비용의 절감 (TCO) 및 통제(Governance) 이슈도 있다.

ITSM 고도화로 주목

그러나 무엇보다도 ITAM이 확산돼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는

ITAM이 ITSM(IT 서비스관리) 고도화의 일환이라는 점에 있다. 전산기획, 개발, 운영부서 전체의 자산관리 프로세스의 확립과 ITIL(IT 인프라 라이브러리)프로세스와의 연계, IT서비스 대가 산정(SLA), CMDB와의 연동 등과 ITAM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 부서를 위한 IT서비스(ERP, CRM, 등)가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시스템화기 필요한 IT부서의 보유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투자대비 성과 파악 및 합리적인 계획 수립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국내 IT자산관리 시장 전망

국내 IT자산관리 시장은 그동안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7년부터는 대형사가 참여하면서 3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ITAM이 ITSM과 결합하면서 프로젝트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ITAM 프로젝트 규모는 수억원 수준이었으나 향후에는 수십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ITAM 관련업체는 보고 있다. IT자산관리가 단순한 라이선스나 변경관리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총체적인 IT 부문 관리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자는 최소 10억원 수준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IT자산관리에 대한 IT투자는 대략 10~15개 업체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종별 선도업체 1~2군데가 이미 올해 중으로 IT자산관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제조업종에서 1군데, 금융업종에서 1군데 총체적인 IT자산관리 솔루션 개발이 이뤄졌으며,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확산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글로벌 업체 동향

국내 IT자산관리 시장은 올해부터 대형업체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한국HP가 페레그린 인수 후 첫 제품인 오픈뷰 에셋 매니지먼트를 지난해 10월 출시했으며, 대우정보시스템이 국산 IT자산관리 솔루션 업체인 넥스젠엔씨지(구 넥스젠테크놀러지)를 인수했다. 또 한국CA도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생명에 유니센터 에셋 매니지먼트를 공급한 이후 본격적인 IT자산관리 솔루션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HP는 그동안 주력해오던 ITSM 비즈니스의 연장선으로 올해부터는 ITAM 사

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HP는 2005년 9월에 IT자산관리 전문기업인 페레그린을 4억 2,500만달러에 인수·합병했다.

향후 HP는 ITSM의 고도화와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IT관리, 구축사례를 통한 자산관리의 선진화, IT거버넌스의 기반체계 구축 등을 앞세워 '전사적 통합 IT자산 라이프사이클관리' 솔루션으로 시장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을 마련해두고 있다.

한국HP는 액센츄어, PWC등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IT거버넌스 시장을 중심으로 IT자산관리 솔루션 수요 발굴에 나서고 있다. 또 SI 등 유관 사업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HP의 핵심 전략은 서비스 딜리버리 영역에서 구성관리DB(CMDB)와의 연계를 통한 ITSM 고도화 이다. 기존 ITSM협력사인, 굿어스, 엔투엠, 위엠비, 예지정보기술, 정원엔시스시스템 등과의 협력과 함께 교육, 프로모션, 추가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국CA는 기존 유니센터 제품군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최근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HP의 시장 공략이 강화되고 대한생명 사례 확보 이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CA는 솔루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업종별 솔루션 도입사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07년 업종별 영업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IT투자가 ROI 극대화를 위한 핵심 요소란 점을 앞세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CA 역시 컨설팅, SI업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IT거버넌스, ITAM 등이 아직은 컨설팅의 비중이 높은 영역이란 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한국IBM은 IT자산관리 개념 확산을 위한 전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MRO소프트웨어를 인수해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까지 포함한 IT자산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각종 설비와 제조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의 ITAM으로 시장을 공략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MRO의 자산관리 솔루션인 '맥시모'를 도입한 국내 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기반으로 한 IT자산관리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향후 IT자산관리 진행방향

IT자산관리는 이제 IT관리의 기반적인 환경관리체계로 이해되고 있다. IT자산관리

에 대한 효과는 기존 중복투자 관리 등을 떠나 EA(전사 아키텍처) 등 큰 틀에서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IT자산관리는 잦은 CIO의 교체 등으로 시스템의 중복투자와 금융권의 데이터 센터 병합, 정부 및 그룹사들의 데이터 센터 설립 등으로 방대해진 시스템들의 정리 및 관리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IT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의 개념에서 출발. 프로젝트와 시스템 투자에 대한 ROI 측정 관리 등에도 필요하다. 이때 ROI의 분모가 되는 IT자산은 당연히 정확히 정의돼야 한다. CIO는 IT 자산관리 틀을 이용해 수익부서로 인정받고자 한다. 또 IT자산관리는 SLA(서비스 수준 협약) 등과 연계돼 발전하고 있다.

올해 금융기관을 비롯해 제조, 공공기관 등은 EA(전사 아키텍처), 또는 별도의 IT 자산관리 프로젝트가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SLA 체계 도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 ITAM 솔루션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